

저널리즘위원회의 의의와 1년간의 활동 과정

## 언론 신뢰 높이기 위한 조력자

김영주 /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저널리즘위원회 사무처장

### 저널리즘위원회에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

“저널리스트가 끝까지 저널리즘을 잃지 않고 가게 하기 위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없으면 흔들리고 현실에 대해 비판만 하다가 생활 일선에서 다른 데로 빠지기도 한다. 언론인의 지위와 품위 향상을 위한 언론인 연금도 토론의 테마가 되지 않을까. 우리 언론이 큰 담론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다. 담론을 계속 담아낼 수 있도록 도구화해야 할 것이다. 저널리즘이 살아 있는 언론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기자협회보, 2018.1.17. 민병욱 이사장 인터뷰 내용)

### 좋은 저널리즘의 복원

저널리즘위원회는 2017년 9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민병욱 이사장 취임 후 출범한 이사장 직속의 정책자문기구다. 위원회는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네 명의 위원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2018년 1월과 2월 두 차례 준비모임을 갖고, 3월 16일 공식적인 첫 회의를 열어 저널리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원회는 ‘좋은 저널리즘의 복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언론재단이 저널리즘 발전을 위해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지 논의해오고 있다.

지난 7개월여 동안 위원회가 해온 고민과 논의 과정, 몇 가지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저널리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 성격과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운영 지침을 만들고 직무를 적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의 역할은 한국 언론의 저널리즘 고취·고양을 위한 사업 제안, 언론인의 지위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 제안, 한국의 언론진흥정책 제안, 재단 사업 검토와 개선방안 자문 등이다.

위원회는 언론인 교육 프로그램 등 재단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현장 언론인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언론인을 경영진, 국장급, 부·차장급, 4~5년 차 젊은 기자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고민과 바람 등을 공유하는

“

‘좋은 저널리즘’에 대한 기대와 갈망, 진짜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들을 공유하면서 위원회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저널리즘의 주요 원칙을 다시 세우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좋은 안내자, 조력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한다.

”



위원회가 제안한 국민 참여 대토론회는 10월 4일과 11일, 18일 세 차례에 걸친 ‘저널리즘 고취를 위한 연속 토론회’로 실행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실행됐다. ‘언론 신뢰도 끌어, 탈출할 길은 없나’, ‘한국 저널리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언론 산업 정부 지원, 어디까지여야 하나’ 등 토론회 주제는 위원회가 고민해온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한 것이다. 토론회에는 언론 관계자뿐 아니라 사회학자, 정치학자, 경영학자, 시민토론자들이 참여해서 저널리즘을 위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제시했다.

### ‘저널리즘 원칙’ 다시 세우자

‘좋은 저널리즘’에 대한 기대와 갈망, 진짜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들을 공유하면서 위원회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민병욱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저널리즘의 주요 원칙을 다시금 세워주고 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려 민주주의와 언론이 자전거 앞뒤 바퀴처럼 흐트러짐 없이 굴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하는 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저널리즘위원회는 저널리즘의 주요 원칙을 다시 세우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좋은 안내자, 조력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한다. 박영상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경, 정영무, 정은령 위원은 그 누구보다도 저널리즘에 대한 애정이 깊고 진지하다. 3회에 걸친 토론회를 마치며 위원회는 좋은 저널리즘과 좋은 저널리즘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